

“각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약간의 돈이나 그 밖의 것을 가져온다. 아무도 강요를 받지 않는다. 자발적인 헌금이다. 성의껏 내는 신탁기금이라 할 수 있다. 그 돈은 ~중략~ 빈민들을 먹이고 그들이 죽으면 장사를 치르는 데 쓰이며, 재산과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와 나이든 노예들과 과선한 선원들을 위해서 쓰인다. ~중략~ 이 같은 사랑의 행위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를 알아보는 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 중략 ~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며 주저 않고 가진 바를 서로 나눈다. 우리에게서 아내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공동이다.”(변증 39. 1. 5. 7.)

오늘도 하느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부르신다.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서성이며 회피할 것인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위해 부름 받은 이들의 모임이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저항하여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당시 로마 권력과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지배체제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부와 법조계, 재벌과 언론이 벌이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의를 자행하는 모든 세력에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담대히 외쳐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분단 되어 늘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민족의 고통과 불안의 현실을 깨트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 종교적 사대주의에 물들어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 준 것들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땅의 백성들과 민중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상에서 자연스레 익힌 우리 문화와 정서로 예배하여야 한다. 복음은 한국 땅이라는 새로운 토지에서 새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키워내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는 신앙이 깊어 짐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 교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로써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해야 한다. 신학과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평신도 스스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개인의 영성을 키우고, 깊이 있는 성서 묵상과 인격수양을 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한 구조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담대한 용기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은 교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하느님과 대면하도록 하게 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도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머무르거나, 위로의 차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느님을 가두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예수처럼 언제나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활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한국교회도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그 때는 많은 백성을 살리는 종교였다. 이제 그 때를 회복하여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느님 앞에 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것이다.

125년경 기독교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는 당시 교인들을 보며 이렇게 썼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됨이 전혀 없습니다. ~중략~ 그들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고아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줍니다. 객들을 보면 그들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며 마치 그가 자신의 형제인 것처럼 그와 함께 즐깁니다. ~중략~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죽었다면 자신의 능력껏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 그들 중의 누군가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서 투옥되거나 압제 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으며 만일 그가 석방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도울 여력이 없으면 그들을 돕기 위한 금식기도회를 2-3일간 했습니다.”(리차드 포스터, 『단순성의 기독교』 122. 재인용)

그리고 초대교부 중에 한명인 터툴리아누스도 그의 책 <변증>에서 처음 신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의 여러 NGO 단체들과도 늘 협력한다. 교회 공간을 그들에게 개방하여 필요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상 속의 교회, 저 하늘에 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향기로운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교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은 교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외래 종교이지 한국인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서구로부터 들어온 종교인 기독교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지만 한국교회는 이 땅의 문화와 현실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기독교 복음이 무교와 유교의 부정적 요소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지만 한편 여전히 기독교는 한국인들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예배신학과 예배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아직도 목도-찬송-기도-찬송-설교-기도-찬송-축도-찬송의 미국의 부흥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서구 교회의 문화를 비판과 성찰 없이 수입하고 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숙에 따른 일상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 보다는 교회성장신학에 의해 교회를 키우기 위한 도구로 무분별한 외국 대형 교회의 문화를 수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땅에 뿌리 박은 한국기독교를 만드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향린교회는 1993년 교회갱신선언을 통해 교회의 예배와 문화에 민족적 정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20년 넘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우리가락으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 악기로 연주하는 우리가락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복음이 한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한국문화라는 토양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이것을 마치 타락이나 왜곡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은 얼마든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나가는 말

사무엘하 7장 4-7절에 의하면 야훼 하느님은 한 집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가 성전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예레미야 7장)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주님의 성전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의와 인권이 행해지는 그 곳에서 살겠다는 야훼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됨의 의미를 지시하고 있다. 도둑질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악이 가득한(렘 7:9-11) 성전,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도들의 소굴로 바뀐 성전을 허무셨다(마가 11:15-17). 성전이 허물어진 자리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와 이웃과 형제에 대한 용서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교회가 서게 된 것이다(마가 11:22-25).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요한 3:16). 그 아들은 세상을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다(마가 10:45). 이제 그 아들은 제자를 불러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마태 28:18-20). 교회는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위한 존재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성장 신학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제 몸 불리기에 쏟아야 할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는 당대의 기독교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예언이었다. 교회는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신앙이 괴리되거나 신앙과 삶이 어긋나는 것을 성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더욱 하느님의 백성 된 자로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교인 한명 한명이 주체적 신앙인이자 만인제사장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목회활동에 참여하려면 함께 하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민주적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든지 자신만 옳다는 독선적 사고를 하면 서로 협력하는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도 알며, 다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분별력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교양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의 분별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 향린의 교육은 다양한 체험과 토론, 그리고 학습자 또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향린교인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목회자의 설교는 성서를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듣게끔 구성되고, 폭넓은 인문학적 정보와 정치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신앙, 신학 강연과 생명, 인권, 통일, 노동, 타종교 이해와 같은 주제들과 관련된 강연들은 맹목적 신앙에 머물러 권위주의에 순응하는 평신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목회자들이 개설하는 성서배움마당 또한 성서를 앞에 놓고 함께 토론하며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향린의 재정과 각종 회의의 안건과 토론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향린의 교회 운영과 목회 활동은 민주적으로 이뤄지며 또 그것을 통해 교인들의 성숙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병폐 중 하나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확대된 가족중심적 집단주의이다. 가족중심적 집단주의는 한국교회 안에서 개교회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sup>9)</sup> 한국교회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임무보다는 개교회 자체의 외형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가치관, 신앙의 에너지와 열정을 개교회 안으로 축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적인 에너지와 은사와 능력을 삶의 다양한 현장과 연결시켜주지 않고 교회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교인들은 단지 목회자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사병이 되어 버리고, 장로들도 교회의 성장 논리가 자신들의 교회 내 영향력과 헤게모니의 확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논리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이런 풍토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논리를 가져오고 참된 신앙에서 교회를 운영하기보다 경영기법을 교회에 도입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술한 우상숭배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가족중심적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에 들지 못하는 타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경쟁적 혹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가족중심적 집단주의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위치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배타적 특성은 바로 이런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향린교회는 분가선교를 한다. 일정 수 이상이 모이면 좀 더 기민하게 하느님의 나라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덩치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종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웃 종교 만나고 배우기, 그리고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웃종교와의 연대에 어떠한 교리적 배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웃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9)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새물결플러스, 2011), 79-81.

해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맞물려 한국인의 사회윤리적 정서의 밑바탕에 있는 서열중심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집단주의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하는 것에 방해물로 작용했다. 우선 유교의 장유유서의 논리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의 한 단면을 살펴보자.

“이런 작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아무리 아랫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더라도윗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한마디로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 자기 몸의 보신을 위해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그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는 알아서 하지 않는다. 또 소신껏 말한 사람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일부러 윗사람의 비위에 거슬리려고 하지 않는다.”<sup>7)</sup>

이런 한국인의 생활방식이 한국교회의 직제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 성직자의 권위의식이라 할 수 있다. 반쯤은 신이 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수록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지도자’로 모셔지는가 하면 한편으로 ‘평신도’라고 불리는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성직자’ 자신들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한다는 구실로 거드름을 피우기도 한다. 성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는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답을 얻는 과학적 방법이나 민주적 대화와 담론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는 방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교회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니” 들어야 한다는 식의 위계질서적 감각을 내면화하면서 신앙의 주체적 형성이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노예화 하는 교인들을 양성하게 된다.

이런 권위주의에 기댄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주된 경향 중 하나는 바로 이성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성 경시의 풍조는 신학과 신학적 성찰을 경시하게 만들고, 많은 이단의 출현을 도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으며, 비민주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성서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목회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내세워 크게 부흥하였지만 복잡다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교인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에 적실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키우지 못한 것이다.<sup>8)</sup>

향린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 내려왔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정신은 바로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모든 목회활동에 참여하는 평신도 목회라는 것이다. 향린교회는 평신도의 다양한 목회활동 참여를 위해 교회의 모든 구조와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나 소수의 당회원들에게만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향린교회는 정관을 만들고 목사와 장로 임기제, 교회를 운영하는 기구의 다원화, 각 단위의 역할 분담, 회의 기구의 장을 한 명이 동시에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통해 교회내 목회자와 교인간, 또는 교인들 사이의 수직적 권력 구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연령, 성별, 교회 다닌 년수, 직분에 상관 없이 하느님 나라 운동과 교회의 목회활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주었고, 교회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성직자의 전유물로 여겼던 설교(하늘뜻펴기), 축도에서도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신학과

7)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무교, 유교, 불교』(사계절, 1998), 193-194.

8)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새물결플러스, 2011), 91-96.

수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보상한다는 구원론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상당히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한국 대다수의 교회는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단지 그의 성육신 혹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한 점을 통해 규명하고자 함으로써 예수를 따르지 않고 다만 종교적 우상으로 만드는 “예수 숭배”에 이르렀고, 구원의 의미가 개인주의적이며 인간중심주의로 편협하게 되었으며,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에 머물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인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하여 끝없는 성장을 부추기는 신고전주의적 경제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sup>5)</sup>

향린교회의 목회와 선교가 다른 교회와 가장 다른 지점은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고,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를 받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나 죽으나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향린교회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와 구원은 개인의 영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계와 사회에서 실현되고 또 이뤄져야 한다고 향린교회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요한 10장 10절). 그러나 세상은 온갖 불의로 가득차 있다. 어둠에 휩싸여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현실은 하느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 위정자와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고, 생태환경은 파괴당하고, 많은 노동자들은 삶터와 일터에서 쫓겨나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면서 늘 전쟁의 불안에 떨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들은 경쟁의 정글에서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제 몸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제는 성직의 세습조차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수 당시 민초들의 피를 빨아 먹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하고, 예수의 예언과 같이 돌 위에 돌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향린의 목회와 선교는 그러한 성전을 허물고 성문 밖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향린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늘뜻펴기<sup>6)</sup>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인들이 그 현장으로 가야 함을 매번 역설한다. 교회 건물에서만 외치는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 고난 당하는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직접 예배하기도 한다. 향린의 선교는 그러한 눈물과 역울함과 서러움이 있는 현장을 찾아 나서서 그들과 함께 울고, 매맞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곳에 청년 예수가 계시다고 믿기에 향린교회의 깃발에는 “청년예수”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특히 사회의 구조적 악과 불의한 이들의 착취와 억압 때문에 고통 당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귀신 축출과 온갖 병든 것들의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예수 당시에도 갈릴리 민중들은 헤롯의 착취와 로마의 폭력, 예루살렘 성전 기득권자들의 종교적 정죄 속에서 고통 당하였고, 예수는 그러한 모든 것과 싸우셨다. 예수는 하나의 종교를 만드시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당시 일반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었다. 오늘날 교회도 성전 안 자기 만의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린교회의 목회와 선교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

5) 쉐리 맥페이그 지음/ 장윤재·장양미 옮김, 『풍성한 생명』,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41.

6) 향린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늘뜻펴기”라 부른다.

종교권력자들의 눈에 밟혔고, 식민지를 통해 배를 불리던 로마의 권력에 위험한 인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접근에서 볼 때 예수의 죽음은 우연적 사고가 아니었고, 그의 사역에 대한 대가였다. 그의 설교와 활동은 종교적 지도자들, 유대 전통과 충돌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은 로마지배 하에 있는 유대사회를 위협하게 만들 정치적 불안을 내포하고 있었다. 마커스 보그에 의하면 예수의 재판 장면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는 사회적 예언자로서 당시의 지배체제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처형당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왕국에 반대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각한 대안적인 사회적 비전을 펼쳤었기 때문에 처형되었다. 당시의 지배체제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로서 살해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예수는 부활하였다. 부활한 존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을 것이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고전 15:17-19) 모든 것이 바로 부활에 달려있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연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행해왔던 사역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 즉 가르침과 활동은 부활 뿐만 아니라 죽음도 설명해준다.

오늘 교회는 이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해야 한다. 예수의 가르침과 활동을 요약하면 그것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준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줌에 있다. 교회는 예수가 전하고 실천했던 하느님 나라의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하지 못하게 된 것인가?

### 3. 성전을 허무는 향린교회의 목회와 선교

한국교회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가장 근저에는 예수를 스승이 아닌 구원자로만 이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도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의 구원관이 교회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에서는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 홀로 모든 일을 다 한다.” 성육신은 오직 한 순간에 그리고 세상의 한 지점 오직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에게만 계신다. 이것은 기적이고, 나아가서 예수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된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준다. 희생적이고 대리적인 속죄와 그 변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전 인류를 대신한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충만하고 완전한 구원을 선포한다. 모든 것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만든다. ‘예수 홀로 모든 일을 다 한다’면, 굶주리는 사람이나, 신음하는 자연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진다.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이 가지는 구원 이해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개인주의적이며 영혼구원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구원론은 전 우주적 관점이 아닌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 개인, 더 내부적으로 그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다. 즉 심리적인 만족과 개인의 행복, 고통의 치유,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쏟는다. 예수는

4) 마커스 보그 & N. 톰 라이트, 『예수의 의미』, 김준우 역, 한국기독교연구원, 2001. 153-154.

게 된 것이다.<sup>2)</sup>

교회의 본질에 대한 둘째 대답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대로 예수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위에 즉 예수 때문에 생겼다. 어떤 공동체가 한 인격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 공동체가 그 인격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완성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가 행했던 가르침과 선교를 오늘의 시대에 재현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으며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sup>3)</sup>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느님의 통치를 선포하였다. 예수는 강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 분이 오시면 모든 가치들이 뒤집힐 것이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맨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선포는 큰 걸림돌이고 하느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만의 방식으로 실천하였다. 먼저 그는 제자들을 불렀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집, 그리고 직업과 마을을 떠나 예수를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했다. 예수는 그 당시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 그는 죄인들과 교류했으며,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예수는 병자들을 직접 만지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 또한 병을 죄의 형벌로 보는 신념체계를 부정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였다. 문둥병이나 다른 병으로 인해 마을로부터 추방되는 자들을 치유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들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예수는 또한 인간을 사로잡은 귀신을 내쫓고 악의 세력과 싸웠다.

예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었는데,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빵과 음료를 나누었다. 예수는 자신이 마련한 식탁에 죄인들과 세금 걷는 자, 매춘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함께 빵을 뜯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고 용서 받은 후에 서로 그들의 회복을 기뻐하며 빵을 나눴다.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예수와 함께 결코 함께 앉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는 깊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자신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다.

하나님 통치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예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율법의 완성을 보았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이는 쉽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때로는 율법학자들과 대치하면서 예수는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삶을 창조하였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었다.

예수는 길어야 3년, 혹은 겨우 몇 달간의 공적활동을 하다가 한창 피어나야 할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적대자들에게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채,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처형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2)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새물결플러스, 2011), 71-74.

3) Elizabeth A. Johnson, *Consider Jesus* (New York: Crissroad, 1990) 49-61.



또한 교회갱신선언에 따라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향린교회만의 몇 가지 특색 있는 목회와 선교가 이루어 지고 있고, 외국에서 한국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진보적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 세상을 변혁하는 목회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로부터 향린의 목회와 선교에 대해 소개해 달라는 요청 또한 종종 받게 되었다. 따라서 60주년을 계기로 우리 자신의 목회를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와 세상이 하나의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향린 교회의 목회를 소개하는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짚고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며 향린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 2.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한국교회 위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 동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계획적으로 어떤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를 소집하여 제도나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았다. 열두 제자를 부른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즉 하느님 백성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상징이었을 뿐이다. 즉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기보다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나자렛 예수를 기억하며 모였고 이렇게 교회는 시작되었다.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 건물이 아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처음 모인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보였다는 고백에 근거하여 “하느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았다. 따라서 처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나 지배자들의 말을 듣기 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사도행전 4:19, 5:29 참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하느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였다(마태 4:17, 10:1). 따라서 교회는 맘몬과 권력의 노예로 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항하여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였고, 언제 어디서나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다.

현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현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에도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종교생활을 현세에서의 출세와 성공, 물질적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신앙의 눈으로 본 세계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 보편적 가치 추구를 상실케 하였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탐욕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당화시켰고, 물질의 축복을 신앙의 크기와 연결지음으로써 비윤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인양 가르쳐 왔다. 이리하여 한국교회는 맘몬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나님이 교인들의 삶과 가치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기복주의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교의 영향과 미국 교회로부터 수입된 소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교회 성장주의와 변영의 신학의 영향이 한 짝을 이루어 형성되었으며, 이런 기복주의적인 경향은 한국 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도입과 군사 독재 하에서 경제 개발과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그 시대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교인들은 교회의 예언자적이며 도덕적인 사명을 방기한 채 기독교의 신앙행위를 물질적 부와 현세적 성공을 이루는 주술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실행하

## 1. 들어가는 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사도행전 2장 47절(새번역 성경)의 일부분이다. 성서가 증언하는 바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보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한 대학의 교수는 한국기독교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시커먼 밤하늘에 똥똥 떠다니는 시뻘건 십자가의 반문화적 행태, 좋은 말씀을 전하러 왔다면 남의 집 문을 멋대로 두드리는 외관원적 행태, 거리와 전철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이나 바보 취급하는 비정상적 행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거대한 교회를 짓는 경쟁에 골몰하는 개발꾼적 행태, 수많은 신도들의 공유재인 교회를 멋대로 자식에게 세습하는 반민주적 행태, 막대한 봉급과 이익을 챙기면서 세금은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사회적 행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파괴하려 드는 비종교적 행태, 이권과 권력을 위해 정치꾼보다 더 강력히 정치적 활동에 몰두하는 세속적 행태 등은 그 중요한 예들일 것이다.”<sup>1)</sup>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도덕적 타락, 반문화적이고 비사회적 행태, 세속적이고 제 잇속만 차리는 장사치의 행동과 배타적이고 독선적 모습, 권력을 향한 세속적 욕망을 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 원치 않았던 식민지, 동족간의 전쟁을 겪고, 반세기가 넘게 분단 체제 속에서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격랑의 역사를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참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생존의 위협과 불안에 떨고 있고, 물질 만능의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기에, 여전히 그리스도교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한 물음들을 물으며 교회로부터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빛이 자신들에게 비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무시와 조롱, 반대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향린교회는 1953년 한국전쟁의 참화라는 민족의 시련 속에서 세워졌다. 뜻을 모은 30대 초반의 젊은 신앙동지들은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리라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교회를 세웠다. 그들의 창립 이념은 공동체 생활, 입체적 선교, 평신도 교회, 독립교회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삶 전체를 헌신하는 선교를 하며, 목회자 없이도 평신도가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선교에 책임을 다하며, 교단과 교파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교회가 이들의 목표이자 지향점이었던 것이다. 교회 창립 이후 60년이 흐른 지금 외형적 모습으로는 교단에 가입하고 목회자가 있는 일반교회가 되었지만 향린교회의 목회와 선교에는 초창기의 창립 정신이 녹아 있다. 또한, 40주년을 맞이하여 스스로 개혁하고자 선

1)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장로' 대통령”, 프레시안 [홍성태의 세상읽기], 2010. 02. 10 기사에서